

진정한 ‘강인함’의 조건

이금화 (경희기록관)

경희의 유산 ①6 『웃는 사자상 ①』

서울캠퍼스 본관 앞 중앙 계단 좌우에는 경희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웃는 사자상이 있다. 1959년 9월 15일 설치된 이 사자상은 조각가 김찬식(전 홍익대 미술대학장) 씨가 석공 6명을 데리고 2개월여 만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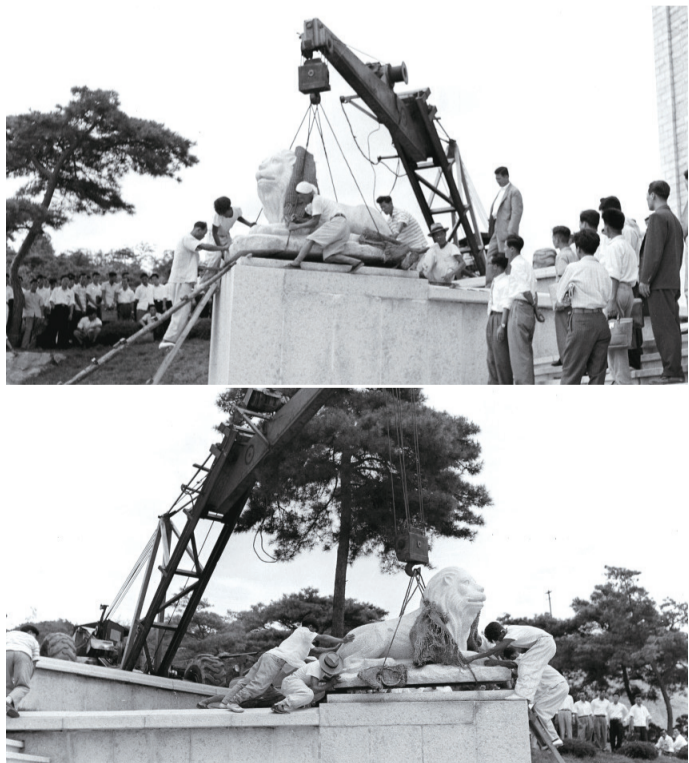
당시 우리 대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본관 앞에 사자상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1969년 발간된 <경희 20년>에는 그 의미가 이렇게 기록돼 있다. “사자는 백수(百獸)의 제왕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사자는 신 중의 신, 태양을 상징했다. 경희대학교가 사자를 마스코트로 하고, 본관 앞에 그 조각상을 앉힌 것은, 경희 건아는 태양처럼 빛나는 지도자가 되고, 경희대학교가 대학 중의 대학임을 의미한 것이다. ... 사자인 태양신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것처럼, 본관 앞에서 있는 두 마리 웃는 사자는 반석 위에 우뚝 솟은 본관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자는 자연 세계의 역동과 힘을 상징한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헤치고 정점에 선 존재라는 뜻에서 ‘백수의 왕’으로 불린다. 그만큼 사자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웃는 사자는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강인함을 넘

어 타자에 대한 관용과 여유의 자세를 지닌 존재를 의미한다. 너그러운과 헤아림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치열한 현실 세계에서 자칫 잃기 쉬운 관용을 품고 살아가자는 것이 웃는 사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우리 대학은 일제 강점기와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의 여진이 채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발발한 한국전쟁의 한복판에서 태동했다. 나라와 민족의 생존과 자존이 무엇보다 절실했던 시절, 경희는 비운의 역사적 현실을 헤쳐갈 강인한 생명력과 삶의 의지를 중시했다. 이 무렵 세워진 웃는 사자상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널리 타인을 포용하고,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는 관용의 자세야말로 경희가 지향하는 인간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본관 외에도 캠퍼스 곳곳에서 웃는 사자상을 만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앞 동의마당, 국제캠퍼스 체육대학관 앞이 대표적이다. 서울 중앙도서관 건물 양쪽 날개부 상단, 경희중·고 교사 뒤편 컴퓨터 지붕 위에도 웃는 사자의 작은 부조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 군데 더 있다. 본관 정면 오른쪽 입구 계단 양쪽에는 소맷돌이 놓여 있다. 이 돌에 새겨진 조각을 잘 들여다보자. 방긋 웃고 있는 작은 암수 사자 한 쌍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경희의 유산’ 다음 회에선 동의마당 앞 웃는 사자상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1959년 9월, 본관 앞에 사자상을 설치하는 모습

제 2회 미원평화상 수상자는 ‘세계원자과학자협회’

김정우 기자 jwkim012506@khu.ac.kr
조천호 기자 cjsgh1026@khu.ac.kr

【서울】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자가 지난 29일 발표했다. 수상자로 독립 비영리 단체 ‘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세계원자과학자협회)’가 선정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미원평화상은 경희학원이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세계원자과학자협회는 194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J. 로버트 오펜하이머 등 맨해튼 프로젝트에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열린다. (사진=김정우 기자)

참여한 과학자들이 설립했다.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인류의 위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구종말시계(Doomsday Clock)를 고안했다.

최종 수상자는 추천위원회가 추

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희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선정위원장인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구종말시계는 인류가 파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은 “세계원자과학자협회가 과학적 통찰로 시대의 경고를 전해왔다면 경희는 학문과 교육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실천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와 동시에 평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KHU:VOICE

(경희를 바꾸는 경이로운 상상)

모든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곳

QR코드 스캔 후 구글폼 신청(1차 접수 마감: ~26.08.28.까지)



가치 향상
(Value-up)

대학의 유 무형 자원을 자산화 하여 새로운 가치수입 창출



열린 참여
(Open)

데이터 정보를 개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



통찰
(Insight)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본질적 혁신



함께 창조
(Co-creation)

구성원·캠퍼스·기관 간 협업으로 시너지 창출



실행
(Execution)

기존 제도를 실제 운영·개선 제도로 구현하는 실행력



대상: 경희대학교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동문)

단위: 개인, 공동, 부서(팀)단위

포상: 제안자 및 실행부서 포상 최대 200만원

문의: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02-961-0022)